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VOL.24 NO.2 : 120-125 (2011)

외음 소양증을 주소로 하는 음부 습진 환자 치험 1례 보고

[1]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2]원광대학교 광주병원 영상의학과
류익한[1], 서은비[1], 김송백[1], 서윤정[1], 이종덕[2], 조한백[1], 최창민[1]

ABSTRACT

A Case Report of Genital Exzema with Pruritus

Ik-Han Ryu[1], Eun-Bi Seo[1], Song-Baeg Kim[1], Yun-Jung Seo[1], Jong-Deok Lee[2], Han-Baek Cho[1], Chang-Min Choi[1]
[1]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2]Dept. of Radiology, Gwang-Ju Hospital of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oriental medicine on genital eczema.

Methods: The Yongdamsagan-tang was used for relieving pruritus, skin flare and the other symptoms. The efficacy of treatment was evaluated with inspection and patient's report.

Results: After treatments, the symptoms of genital and hand eczema were improved and the patient has not reoccurred.

Conclusions: This case report shows that the herbal medication relieves the pruritus, skin flare and the other symptoms caused by genital eczema..

Key Words: Pruritus, Genital eczema, Herbal medicine

"이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0."

교신저자(최창민) : 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번지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전화: 062-670-6437 이메일: myway7582@hanmail.net

Ⅰ. 서 론

외음부의 소양증은 여성의 외음부 질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일반 여성 인구 집단에서 정확한 유병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소양증의 원인이 아주 다양하며,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고 분명하지 않은 때가 자주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연구대상이 특정한 연구조건이나 진료여건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Kinster는 외음 소양증이 부인과 외래 환자의 약 10%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1,2].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외음 및 질에 심한 가려움이 있는 것을 陰痒이라 하며, 성기의 潰爛 및 통증, 그리고 가려움이 있는 상태를 陰瘡이라 한다. 즉, 陰痒은 양방의 외음 소양증에 해당하며, 陰瘡 또한 외음 소양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1].

대다수의 보편적인 피부염군은 소양증을 일으킨다[1]. 습진(濕疹, eczema)은 가장 흔한 피부질환 중 하나로 다양한 외인성 및 내인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의 염증 반응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환이다. 습진은 일반적으로 발적, 소양증, 삼출물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내는 비전염성의 급성 및 만성의 피부 염증 상태를 말하며[3,4], 그 중 소양증이 주된 증상이다[5].

한의학에서 습진성 질환은 浸淫瘡에 해당한다. 浸淫瘡 또한 소양감이 매우 심한 질환으로 일정한 발생부위가 없이 전신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될 수 있으며, 주로 頭頸, 四肢屈側部, 陰部, 小腿 및 手足部 등에 비교적 많이 발생된다[3]. 습진, 즉 浸淫瘡이 여성의 외음부에 발생하면 외음 소양증을 유발하게 된다.

외음 소양증의 치료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실험에서 치료에 대한 내성이 문제가 되며, 아토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6]. 습진의 치료도 마찬가지로 국소 스테로이드제와 경구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나 조속한 증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양증과 긁음의 악순환(itch-scratch cycle)이 지속되어 병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7,8]. 이에 저자는 외음부의 습진으로 인한 소양증으로 ○○한방병원 여성의학과에 내원한 환자 1례를 치료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1. 환 자: 박○○ (F/42)
2. 내원일: 2009. 8. 31
3. 주 증

외음부 및 항문의 소양감, 발적, 창양, 출혈

4. 부 증

손의 소양감, 월경불순, 상열감, 흉민, 불면

5. 진 단

1) 한 방: 陰瘡, 陰痒, 浸淫瘡
2) 양 방: 음부 습진, 외음 소양증

6. 초진소견

1) 신 장: 153cm
2) 체 중: 53kg
3) 食 慾: 良好
4) 消 化: 良好
5) 大小便: 良好
6) 睡 眠: 2009년 2월초에서 3월초까지

3주간 불면증으로 입원치료, 이후 안정제 계열 약을 하루에 2번 복용 중

7) 舌 紅

8) 脈 微

7. 발병일: 2004년 무렵

8. 현병력

약 5년 전부터 매년 겨울마다 심해지는 외음부 및 손의 가려움증으로 양방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 12월 양약 28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함. 2009년 6월경부터 외음부 및 항문 주위의 소양감과 피부 발적이 있었으며 환부를 긁어서 상처와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양약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함.

9. 과거력

1년 전 할머니 사망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上熱感 및 胸悶

10. 월경력

주기: 불규칙. 5개월간 무월경(2008년 2월 - 2008년 6월)

11. 산과력 : 0-0-0-0 (미혼)

12. 치료내용

1) 한약치료

20첩 120cc 30포 분량으로 1일 아침, 저녁 식후 2회 매회 1포 복용하여 15일간 복용하도록 하였다.

龍膽瀉肝湯 加減方: 龍膽草 柴胡 澤瀉 木通 車前子 赤茯苓 生地黃 當歸 各 4g, 梔子 黃芩 甘草 各 2g, 加 金銀花 6g, 玄蔘 麥門冬 各 4g, 黃柏 3g

2) 침구치료

환자분 연고지 관계로 꾸준한 치료가 힘들어 한약치료 위주로 진행함

12. 치료경과

Table 1. The Progress of Condition and Treatment

Date	Condition	Treatment
2009.8.31	외음부 및 항문 부위 소양감 및 腫痛, 搔爬시 출혈 호소함 부인과 검진 상 외음부 및 항문 부위 피부 발적 관찰됨	龍膽瀉肝湯 加減方 15일분
2009.10.9	소양감 - 평상시에는 거의 못 느끼고 간혹 자다가 소양감으로 인해 깨는 정도 피부 발적 - 항문 부위 주변만 약간 남음	龍膽瀉肝湯 加減方 15일분
2009.10.28	상기 증상 소차 호전	龍膽瀉肝湯 加減方 15일분
2009.11.23	소양감 - 상열감이 있을 경우 간혹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 피부 발적 - 완전 소실	치료 종료. 경과 관찰
2010.10	전화 추적 관찰 상 모든 증상 호전, 재발 없음	

Ⅲ. 고 찰

여성의 외음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가려움증이다[2]. 가려움은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유쾌한 감각으로 피부신경을 약하게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 증상이다[9]. 습진, 두드러기, 알레르기 피부질환, 건조증, 악성 림프종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신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10].

소양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습진은 피부의 염증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성기에는 소양증을 동반한 수포성 구진, 홍반, 부종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삼출성 병변을 보이며, 만성기에는 부종과 수포는 감소되는 반면에 태선화, 인설 등이 형성된다. 흔히 습진과 피부염을 동일한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혼용하고 있으나 후자는 조직학적 의미를 포함한다. 즉 육안으로 염증을 인지할 수 없어도 조직학적 염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부염은 습진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3].

한의학적으로 습진은 浸淫瘡에 해당한다. 浸淫瘡은 稟賦가 不耐하고 濕熱이 內蘊한데 다시 風濕熱邪의 침습을 받아 內外의 邪氣가 相搏하여 肌膚로 外發하게 되어 발생한다. 초기에 皮疹이 疥와 같고 소양감이 매우 심하여 搔爬하면 黃水가 흐르고 浸淫 및 濕爛되어 片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발생부위가 없이 전신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될 수 있는 전신적인 피부질환으로 주로 頭頸, 四肢屈側部, 陰部, 小腿 및 手足部 등에 비교적 많이 발생된다[3].《黃帝內經 玉機眞藏論》에 "浸淫"이라는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11],《東醫寶鑑 諸瘡》에서는 "浸淫瘡, 初生甚小 先痒後痛 汁出浸淫 濕爛肌肉延至遍身…"이라 하였다[12].

여성의 외음부에 습진이 발생할 경우 외음부의 소양증 및 창양 등의 임상 양상으로 볼 때 陰痒 및 陰瘡의 범주에 해당한다. 陰瘡은 여성의 陰戶에 瘡이 생기고 국부에 紅, 腫, 熱, 痛이 있을 수 있으며 오래되어 덩어리를 형성하거나 혹은 化膿腐爛되어 膿水가 흐르며 심하면 벌레 먹은 것처럼 潰瘍되는 것을 말하는데 성기의 潰爛, 통증 및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1].

陰痒은 여성의 외음 및 질에 심한 가려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하량의 증가를 수반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陰痒의 발생은 주로 濕熱下注, 肝腎陰虛 및 心肝鬱火에 기인한다. 濕熱下注는 대개 대하와 함께 나타나고 감염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肝腎陰虛는 일반적으로 陰部가 乾澁하고 灼熱感이 있다. 心肝鬱火는 정서와 관계가 있으며 대개 虛實의 중간에 속한다. 濕熱下注에 의한 경우 많은 양의 황색 또는 포말상의 대하가 수반되며, 외음부 및 질이 붉은 색을 띠거나 충혈되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校注婦人良方》에서는 "婦人陰內痛痒, 內熱倦怠, 飮食少思, 此肝脾鬱怒, 元氣虧損, 濕熱所致"라고 하였으며,《女科經綸》에서는 "婦人陰痒, 多屬 蟲蝕所爲, 始因濕熱不已"라고 하였다[1].

치료는 기본적으로 소양증을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辨證施治나 외용약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한다. 濕熱下注의 경우 淸熱滲濕, 殺蟲止痒하는, 龍膽瀉肝湯, 柴胡四物湯 등을 사용하며, 肝腎陰虛에는 滋陰降火, 調補肝腎하는 知栢地黃湯, 杞菊地黃湯을 心肝鬱火에는 淸肝解鬱하는 丹梔逍遙散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1]. 치료에 있어서 內治法과 함께 外治法도 중요시 되어 왔는데, 외음 소양증에 응용할 수 있는 오배자, 애엽, 고삼, 지부자 등의 외용약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3,14].

본 증례에서 사용된 龍膽瀉肝湯은《蘭室秘藏 陰痿陰汗門》에 최초로 수재된 처방으로 治陰部時復熱痒及臊臭한다고 하

였고[15], 그 후《醫宗金鑑》에서《蘭室秘藏》의 처방에 黃芩, 梔子, 甘草를 추가하여[16] 纏腰火丹, 耳疳, 懸癰, 疳瘡, 腎囊風, 婦人陰瘡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며[17] 이후 여러 의서에 수재되어 肝膽의 實火나 濕熱下注로 인한 각종증상에 활용되었다[16]. 최근에는 항염증 효과[18]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만성 바르톨린선 낭종[19]이나 대상포진[20]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龍膽瀉肝湯의 구성약물 중 龍膽은 味苦, 性寒한 약물로 淸熱燥濕, 瀉火定驚의 藥理作用이 있으며, 肝膽實火에 효과가 있다. 柴胡, 草龍膽은 肝膽之火를 瀉하고, 澤瀉, 木桶, 車前子, 茯笭은 瀉濕熱 利水道한다. 또 澤瀉는 腎經의 濕을 利하고, 木通, 車前子는 小腸 膀胱의 濕을 利하며, 茯笭, 梔子는 三焦의 濕熱을 淸利하고, 黃芩은 大腸熱을 散하며, 當歸, 地黃은 散瘀和血하고, 甘草는 澁痛을 緩和한다[21]. 본 증례에서는 肝膽實火, 濕熱下注를 다스리는 龍膽瀉肝湯에 淸熱解毒, 涼散風熱의 효능이 있는 金銀花, 養血滋陰, 瀉火解毒의 효능이 있는 玄蔘, 養陰潤肺, 淸心除煩, 益胃生津의 효능이 있는 麥門冬, 淸熱燥濕, 瀉火解毒, 退虛熱의 효능이 있는 黃柏을 加하여 사용하였다[22].

증례에서 환자는 외음부의 소양감과 피부 발적을 호소하였다. 외음부는 肝經의 脈絡이 분포하는 부위로 火가 肝經을 어지럽히게 되면 陰痒이 발생한다. 또한 환자는 약 1년 전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상열감 및 흉민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 하였다. 이는 鬱怒傷肝하여 熱이 발생한 때문으로 陰痒의 辨證 중 濕熱下注型의 증상과 유사하다[1]. 전반적으로 肝經의 火熱로 인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肝膽實火 및 濕熱下注를 다스리는 龍膽瀉肝湯을 加減하여 처방하였다[16]. 처음 15일 복용한 이후 외음부의 소양감이 현저히 감소하여 수면 중 간혹 가려움으로 인해 깨는 정도로 호전되었으며, 피부 발적도 감소하여 항문 주위로 경미한 피부 발적이 남아 있는 정도로 호전되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龍膽瀉肝湯 加減方을 추가로 처방하였으며 약을 복용하는 동안 점차적으로 소양감과 피부 발적이 호전되었다. 2009.11.23 치료 종료 시점에 외음부의 발적은 완전 소실되었으며, 소양감 또한 상열감이 있을 경우 간혹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호전되었다. 손의 습진도 호전되어 소양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스테로이드의 사용도 없었다. 이후 내원 시 소양증 재발 여부 등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2010.1.21 내원 시까지 재발은 없었으며, 2010년 10월에 시행한 전화 확인에서도 소양증의 재발은 없었다.

Ⅳ. 결 론

외음부의 소양감 및 건조감, 피부 발적 등을 보이는 음부 습진 환자 1례에 대하여 龍膽瀉肝湯 加減方의 투여를 통해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가 1건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유사한 증례에 대한 임상적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한의학적인 치료의 유효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투 고 일 : 2011년 4월 30일
□ 심 사 일 : 2011년 5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5월 11일

참고문헌

1. 한방여성의학편찬위원회. 한의여성의학Ⅰ. 서울:정담. 2007:315-22.
2. Bohl TG et al. Overview of Vulvar Pruritus Through the Life Cycle. Clinical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5;48(4):786-807.
3. 노석선. 原色 皮膚科學. 서울:아이비씨기획. 2006:489-93, 508.
4. Schmelz M, Schmit R, Bickel A. Specific C receptors for itch in human skin. The Journal of Neuroscience. 1997;17:8003-8.
5. Gilchrest BA. Pruritus: pathogenesis, therapy, and significance in systemic disease state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982;142:101-5.
6. Sarifakioglu E, Gumus II. Efficacy of topical pimecrolimus in the treatment of chronic vulvar pruritus: A prospective case series-a non-controlled, open-label study. Journal of Dermatological Treatment. 2006;17(5):276-8.
7. Sampson HA. Atopic dermatitis. Ann Allergy. 1992;69:469-79.
8. Wahlgren CF. Pathophysiology of itching in urticaria and atopic dermatitis. Allergy. 1992;47:65-75.
9. Yosipovitch G, Greaves MW, Schmelz M. Itch. The Lancet. 2003;361:690-4.
10. O'Donoghue M, Tharp MD. Antihistamines and their role as antipruritics. Dermatologic Therapy. 2005;18:333-40.
11. 黃帝內經 素問(欽定四庫全書 1). 서울:대성문화사. 1980:25, 69, 277.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活仁文化社. 2005:1036-7.
13. 張峻福, 李京燮, 安炳基. 陰戶病의 外用藥으로 應用되는 五倍子, 艾葉, 苦蔘, 蜀椒 및 黃栢의 抗菌과 消炎效果. 대한한의학회지. 1993;14(2):270-80.
14. 김정선 등. 지부자 피부도포가 히스타민 유발 소양감, 홍반, 팽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3;24(1):133-40.
1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 7.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401.
16. 吳謙 등. 醫宗金鑑. 서울:지산출판사. 2008:386-7, 426-7, 656-7, 667-9, 682-6.
17. 李東垣 등. 東垣十種醫書. 서울:大星文化社. 1991:224.
18. 이승준 등. 龍膽瀉肝湯加味方3種의 염증관련 인자 억제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9;22(3):51-65.
19. 박현재, 김경숙. 만성 바르톨린선 낭종 환자 치험 1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4;17:211-8.
20. 정민영 등. 용담사간탕 투여로 호전된 대상포진 환자 치험 3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176-83.
21.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경기도:성보사. 2005:266-7.
22.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敎材編纂委員會. 本草學. 서울:永林社. 2007:240-1, 233-4, 221-2, 644-5.